

김채원 소설에 나타난 실존적 탐색과 장소성*

이 상 진**

요약

이 연구는 김채원의 후기 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전기 대표작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특징과 실존적 탐색의 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실존적 탐색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인문지리학적 논의결과에 기대어 실존적 탐색과 장소성을 연관시켜 해석을 시도하였다.

분단성장세대로서 김채원은 전쟁과 분단으로 이산의 고통을 겪었고, 남성 부재의 현실에서 여성 가족원에 대한 모방과 거부 속에 성장했으며, 전후에 유입된 서구문화에 의한 이국취향, 이념대립과 도피의 갈등 속에서 글쓰기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전기적 사실과 문체의식은, 삶의 본질과 근원을 탐색하지만 뿌리내릴 삶의 장소를 찾지 못한 채 되돌아오는 상실과 이탈, 회귀의 서사구조에 피와 살이 되었다.

김채원 소설의 탐색적 구조에는 기원으로서의 집(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막연한 불안, 비현실적 실체감, 이탈의 무의식적 욕망, 길 찾기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여성 인물들은 현실에서 이질감과 외부성을 느끼며 진정한 장소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시공간을 상상하여 탐색을 시도한다. 이 실존적 탐색의 과정에서, 여성에게는 뿌리내림의 원천이자 감옥이 되는 집이라는 장소에 대한 지향과 저항을 드러낸다. 이국의 경험을 모티프로 한 소설에서는 세계의 힘이라 믿었던 이그조티시즘의 실체와 자기기만을 목도하며, 세상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주변화된 채 노년에 이른 여성 분단성장세대의 회복할 수 없는 실존적 외부성을 자각한다. 그리고 급격한 상업적 개발과정에서 규격화와 획일화로 경관을 훼손하고 고유한 장소감을 상실하게 된 현실을 비판한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김채원, 여성성, 집, 장소, 장소성, 장소 상실, 실존적 외부성, 노년

목차

1. 집이라는 장소, 글쓰기의 기원
2. 여성정체성과 환(幻), 뿌리내림의 지향과 저항
3. 엑조티시즘과 실존적 외부성
4. 현대 문명 비판과 장소 상실
5. 노년의 불안과 길 찾기
6. 영원한 외부성, 분단성장세대 여성의 글쓰기

1. 집이라는 장소, 글쓰기의 기원

김채원은 전쟁과 분단, 이산의 가족사를 배경으로 하여 여성의 실존적 의미를 집요하게 파헤쳐 온 작가이다.¹⁾ 1970년대 중반에 등단하여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해 왔으며 오정희, 서영은, 강석경 등과 함께 전후 여성 성장소설 세대 작가로 특별한 문학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채원 소설이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실험성으로, 서사의 해체, 산만한 구성, 플롯의 부재 등의 특성이 지적되기도 했고,²⁾ 물질문명과 가부장제라는 거대 질서의 폭력으로 인한 관계 단절로부터 탈피하고 새로

1) 50년 가까이 작품 활동을 한 것에 비한다면 김채원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작품론 중 대부분은 서평 중심이고, 특히 문학상을 수상하여 특별한 주목을 받았던 『초록빛 모자』, 『겨울의 환』 등의 작품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김채원은 시인 김동환과 소설가 최정희 사이에서 태어나, 언니인 소설가 김지원과 함께 문인 가족이자 자매소설가로 주목받았다.

2) 김채원은 스토리를 거부해온 작가, 사물과 만나는 감각적 의식 그 자체를 중시하는 작가로 주목받았다. 중기 이후에는 이미지나 모티프의 느슨한 연결과 흐름이 더욱 지배적으로 나타나, 이런 특성을 화가로서의 회화적 감각, 이미지에 초점을 두고, 혹은 의식의 흐름, 환상성 등으로 분석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원형갑, 『김채원 또는 미래의 아방가르드』, 김채원, 『달의 몰락』, 청아출판사, 1995, 405면; 권택영, 『수채화같은 내면 소설』, 김채원, 『달의 강』, 해냄출판사, 1997, 195면. 외

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초현실주의적 인식 체계를 소설에서 내보였다는 해석도 있었다.³⁾ 또한 김동환의 납북과 전쟁, 분단으로 인한 이산체험, 복잡한 가정사 등 전기적 사실이 작품 해석의 초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야기에서 유사한 모티프가 반복되는 점, 서술자의 논평적, 고백적 서술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이러한 평가에 설득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체험 내용은 소설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유효한 듯하다.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김채원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실존적 탐색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우선, 소설의 주제적 인물이자 화자는 주로 관찰하고 보고하고 논평하며 집요하게 삶의 의미를 되묻는 여성이다.⁴⁾ 이 여성은 어디에도 무엇에도 완전히 소속될 수 없는 이질감,⁵⁾ 뭘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열린 자유의 세계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자기 문제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그리움으로 남은 유년기의 낙원으로 회귀(퇴행)한다.⁶⁾ 이러한 서사적 해결은 현실을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시각에서 관찰한 결과로서, 전형적인 중산층 여성의 자의식에 근거한 수동적 이데올로기의 표현이자, 가부장제적 의식의 내면화⁷⁾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여성의 실존에 대한 진지하고도 집요한 탐색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⁸⁾ 이

3) 오유진, 『김채원 소설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상상력 연구』 서울대학교원 석사논문, 2020.

4) 보통 주인공이자 화자, 혹은 초점자로 등장하는 이 여성 인물의 설정에서 김채원의 전기적 사실 중 많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남성 부계의 가족관계, 자매 혹은 모녀의 관계설정, 작가가 체류한 이국 배경,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경험 내용 등이 그렇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전기적 사실을 근거로 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5) 문혜원, 『그 여자, 시시(時時) 곳곳에 있는 '나들』, 『쪽배의 노래』, 문학동네, 2015.; 김훈, 『집 없는 여자들의 집짓기』, 김지원 김채원, 『집/그 여자는 거기에 없다』, 청이출판사, 1996.

6) 박철화는 이러한 흐름에 나타나는 작가의 사유를 '낙원 → 상실 → 회귀'의 구조로 보고, 존재의 문제가 폐쇄적 공간에서 이타성의 공간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철화, 『의지의 떨림, 떨림의 미학』, 『봄의 환』, 열림원, 2003, 264면.

7) 김영미·김은하,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탐구』, 『오늘의 문예비평』, 1991.9

러한 실존적 탐색의 구조는 후기소설에도 이어져 여전히 “삶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보기 위한 렌즈”⁹⁾로 일상을 비추고 탐색하는 글쓰기가 나타난다.

김채원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은 이러한 탐색의 과정을 장소에 대한 기억과 느낌을 통해 사실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채원은 자주 본인의 창작 산실이자 고향과 같은 장소로 동승동의 집을 언급했다. “꽃과 나무가 많고 약수가 있는 낙산 밑의 집” “아침이면 꿩이 마당에 내려왔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방 안에서 마당의 꿩을 내다 보았”¹⁰⁾던 이 집은 김채원의 유년기, 단란하고 평화로웠던 가족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을 품고 있다. 인문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장소는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이며, 특히 유년기의 집은 인간이 뿌리내리고 있는 터전이자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다. 집은 생애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감과 신뢰, 정통성의 근원이 되는 장소이며 강력한 내부성을 구축하는 구심점이 된다.¹¹⁾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동승동의 집은 김채원에게 세계를 인식하고 실존적 내부성을 획득하는 구심점이 되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집은 전쟁이 일어나고 제때 피난하지 못한 아버지 김동환이 납북되면서 슬픈 가족사가 스민 장소로 변했다. 김채원은 이 집을 후에 ‘얼음집’으로 표현했으며, 그간의 연구는 전쟁기를 거치고 난 후, 이 집에서 겪은 납북과 이산, 전후 남성 부재로 인한 여성 가족원의 고통이 김채원에게 상실과 억압, 불안감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¹²⁾ 유년기

8) 장석주, 박철화, 임금복, 문혜원, 김인옥, 오유진 등의 연구가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테바의 논의를 빌려 기호계-상징계를 거쳐 미끄러지는 욕망의 환유를 지적한 김인옥의 분석은 초기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나, 후반부의 작품까지 여전히 유효한 연구 시각이라 생각된다.

9) 변신원, 『환멸에서 환상으로 김채원론』,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길사, 2000, 117면.

10) 김채원, 『작가 연보』, 『달의 몰락』, 앞의 책, 407면.

11) 인문지리학자인 에드워드 렐프에 의하면 유년기의 장소들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자신의 지각공간과 장소를 가진다는 것, 합의된 생활 공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게 만든다.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42-46면.

의 뿌리, 집이라는 장소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김채원의 『작가 연보』를 보면 동송동 집에 대한 이 기억과 함께 길을 잃어버린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 피난지에서 돌아온 후인 1953년, 김채원은 학교 가는 길에 혼자 다른 길을 선택했고, 다른 길로 가도 학교에 도착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했지만,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내용이다.¹²⁾ 어린아이가 길을 잃은 것은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김채원이 글쓰기의 기원이 되었다고 밝힌 동송동 집에 대한 기억과 함께, 어린 시절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에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년기의 장소들은 자신과 가족 중심의 장소로서, 이 장소를 중심으로 타인의 삶과 공간을 이해하고, 공간을 확장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김채원은 자기가 중심인 기지(既知)의 장소로부터 이탈하여 독립적으로 미지(昧知)의 공간을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 관계와 경험을 확장하는 일에서 실패했다. 이 경험을 특별하게 서술함으로써, 정통성의 근원이 되는 집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이탈의 무의식적 욕망, 그 선택(탈주)과 회귀의 과정에서 가지게 된 길 찾기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암시한다.

유년기 집에 대한 기억과 길을 잃은 이 사건은 김채원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집의 이미지와 길 찾기 모티프의 원체침이 되었다고 할 수

12) 김인옥은 김동환의 납북과 이별은 상실의 고통과 무의식적 억압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김인옥, 『김채원 소설 연구』, 『개신어문연구』, 1998.12. ; 김경수도 상징적인 아버지의 부재와 가부장제의 균열은 여성가족원에게 정신적 충격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김경수, 『한국여성소설의 현대성』, 『한국여성소설연구 2』, 갑인출판사, 1991, 293면.

13) 이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953년 : 서울 창경국민학교 입학. 국민학교 2학년때 학교 가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가다가 혼자 다른 길을 택해 갔는데 그 길로 가도 학교가 나오리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점점 이상한 동네가 나왔다. 급기야는 길 가는 사람에게 이끌려 파출소를 찾게 됐는데 순경이 2학년이나 돼서 어떻게 학교 가는 길을 잃어버리느냐고 했다. 순경과 함께 이상한 동네에서 벗어나 큰길로 나오자 곧 길을 알 수 있었으나 순경에게 그 말을 못 하고 할 수 없이 순경을 따라 집까지 와야 했었다.' 『김채원 연보』, 김채원, 『오늘의 한국문학 33선-김채원』, 양우당, 1991, 43면.

있다. 『애친』(1984)에서 시작하여 『겨울의 환』(1989), 『인 마이 메모리』(1999)를 거쳐 『베를린 필』(2015)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작품에서 인물이 느끼는 유사한 장소성, 이탈과 탐색의 서사 구조를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김채원 소설의 주인공들은 어떤 장소에서도 행동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내부성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화되고 있다. 초기 소설에서 가족의 해체, 분단과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불안감이, 이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는 외국 생활 부적응과 이질감이, 후반부에는 노년기에 접어든 인물이 느끼는 위축감, 소외감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빠른 속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화되는 주인공이 느끼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전경화되면서 물질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도 드러난다. 2016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베를린 필』은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절박하게 ‘어 마이’를 외치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한 세대의 쇠퇴과정과 피로감, 불안과 상실감을 무겁게 전달함으로써 이런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시켜주었다. 그 실존적 탐색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노작가의 글쓰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채원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실존적 탐색의 구조와 내용을 이.푸 투안과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와 장소성, 장소상실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후기작품을 중심으로 전기의 주요작품에서 이어지는 상실감, 불안, 두려움의 정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장소성을 중심으로 전후 성장세대의 문제적 지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2. 여성정체성과 환(幻), 뿌리내림의 지향과 저항

김채원 소설의 문제성을 살피기 위해 실존적 탐색의 원형이 되는 대표작 『겨울의 환』¹⁴⁾을 재검토하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해보기로 하겠다. 이

작품은 불운한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여성 화자가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에 대해 쓴 고백체 소설이다. 마흔셋의 ‘나’가 비로소 “자궁을 가진 여자로서의 숙명”에 대해 생각하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의 운명을 겹쳐서 읽게 된다. ‘나’는 삼촌과 아버지의 부재로 조각난 가족의 삶을 기록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불운한 대물림에 저항한 끝에, 스스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 “짜리문은 여잡고 기다리”고, “밥상을 차리는 여자”의 세계로 회귀¹⁵⁾하고 있다.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에 대한 답으로 짜리문을 부여잡고 집을 지키며 밥상을 차리는 행위를 발견한, 이 ‘인식의 대전환’은, 실상 버선에 찢듯하게 묻은 때가 준 충격, 집을 뛰쳐나오게 한 애초의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이 회귀는 제목 그대로 겨울의 환상으로서, 닳은 운명, 같은 문제에 도달한 여성 3대의 순응적 삶에 대한 보고이자 저항의 역설적 표현일 뿐이다.¹⁶⁾ 여성의 실존적 탐색의 구조에 방점을 두고 읽을 때, 『겨울의 환』에서 주목할 것은 탐색의 실패와 회귀의 과정을 지배하고 종국에는 이를 뒤집는 비현실적인 실체감, 환(幻)이다. 화자는 아이도 못 낳고 결혼예물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갈등을 겪다가 이혼한 상황도, 나와 아저씨가 났다는 산불도, 할머니의 동치미도, 어머니의 두루뭉수리 된장찌개도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것, “이 세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반복하여 서술한다.

14) 『겨울의 환』은 “이념의 잣대로 모든 것을 마름질하는” 풍토에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한” 1980년대의 이념적 피로감 때문에, (권영민, 『13회 이상문학상 심사평 - 잔잔하게 밀려드는 이상스런 감동』, 『겨울의 환』, 문학세계사, 1989.) 이상문학상 수상작이 되는 등 많은 평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15) 장석주는 진정한 여성적 삶의 실현, 여성으로서 살아감의 진정한 의미 발견과 그것으로의 회귀의 여로를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장석주, 앞의 글; 박철화를 비롯한 몇몇 남성비평가들도 이 마지막 지점의 변화를 두고 인식의 대전환, 낙원으로의 회귀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는 남성적 시각에 의한 편향적인 해석, 의도적 오독에 가깝다.

16) 이 점에서 악마와의 결탁에 방점을 둔 김윤식의 분석은 겹겹이 숨겨놓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윤식, 『동치미가 불러낸 허깨비』, 김재원, 『봄의幻』, 앞의 책.

평화로운 산과 논밭 들판,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 그리고 아이들 소리, 한낮의 햇빛과 바람 속에서 긴박감을 알리는 제 소리가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래도 좋고 아니래도 좋다. 이 세상이 아닌 것 같다. 아마 이 세상이 아닌가 보다. 도깨비방망이를 흔들어 어딘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잠시 열린 것 같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심정이 되었습니다.¹⁷⁾

주인공은 묘소에서 불길이 번지던 그 긴박한 순간에 느낀 비현실감에 대해 서술한다.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다른 세상이 열린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받은 것이다. 이뿐 아니라 ‘나는 평화로운 들판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리에서도, 일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장소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내가 “비현실적 실체감”이라고 표현한 이 느낌은 남성 가족원의 부재에 대한 느낌과 연결된다. 주인공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며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닌, 거기에 뚜렷이 있는” 존재를 하나씩 언급한다. 처음에는 “당신”으로 지칭되는 남자이고, 월북한 삼촌이며, “기억 속에 아무런 영상도 없이 오직 無인 아버지”이다. 즉 할머니가 애타게 기다리는 삼촌과 어머니가 그리워하는 남북 된 아버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게 된 남자이다. 이 남자들은 ‘부재의 존재’로서 이 집에 사는 여성들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주인공이 현실에 뿌리내리고자 해도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은, 여전히 싸리문을 부여잡고 집을 지키도록 추동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다.¹⁸⁾

17) 김채원, 『겨울의 환』, 『봄의 환』, 앞의 책, 97면.

18)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여성연구자들로부터 성역할 대립 구도를 넘어서 ‘돌봄의 윤리’가 만들어 내는 성스러움을 발견해냈다는 해석(조희경, 『김채원의 『겨울의 환』에 나타난 구원의 여정』, 『문학과 종교』, 2007.)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희생적 여성의 신화로 인도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젠더 감수성”을 보여주었다(정미숙, 『밥상의 지형과 젠더 구성』, 『현대문

그러나 문제는 남성 부재의 현실에만 있지 않다. 대물림된 가부장적 사고에 의해 여성 가족원은 거꾸로 존재하나 부재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곧 월복한 아들만을 기다리느라,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딸에게 충분한 위안과 배려를 베풀지 못한다. 또 납북된 남편과 냉정한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어머니는 성장기의 딸에게 아버지의 자리도 채워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성장모델도 되지 못한다. 결혼과 이혼의 과정에서 강조되는 “버선”은 가정 내 노동 강요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상처 투성이의 여성 3대로 인해, ‘나는 일상의 곳곳에서 “비현실적 실체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같은 해 발표된 『오후의 세계』에서 이 비현실적 실체감은 더 강조된다. 이 작품은 인생의 오후에 닿은 중년 여성의 시선과 목소리에 의지하여 서술되며, 이렇다 할 극적 사건이나 이야기 없이 일상에 대한 관찰과 촘촘한 보고가 중심이다. 여기에 주인공이 느끼는 이질감, 잃어버린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상실감, 아득한 그리움이 겹쳐서 그려진다. ‘여자’는 남편을 따라 프랑스의 작은 소도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자전거를 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장을 보고 음식을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되지 않는 고립감,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차 있는 듯한 거부감과 갑갑함을 느낀다. “있으려고 안간힘을 써야만 있어지는 듯”한 느낌도 받는다. 인간은 보통 한 장소에서 적절한 활동과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장소로부터 소외되고, 진정한 장소감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¹⁹⁾ 이 소설의 ‘여자’ 역시 이국의 도시에서 집 안의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거리를 관찰할 뿐, 관계확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외부성’은 개연성 있게 전달된다.

학이론연구』 78집, 2019.)는 상반된 지적을 받았다. 사실상 이는 김채원을 포함한 여성 분단 성장세대가 공통적으로 보여준 한계이기도 하다.

19) 심승희, 「장소 개념의 스펙트럼과 잠재력」,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현대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2013, 108-109면.

중요한 것은 이 비현실감이 정도 이상의 상태로 이끈다는 데 있다. ‘여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정을 바라보는 일이 이상하고, 아이에게도 임신한 태아에 대해서도 무덤덤할 뿐이다. 어머니로서나 아내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현실감을 느끼지 못한다. 작은 실수에도 위축되고 긴장하며, 진짜 자신으로부터 멀리 도망간, “중년의 껍데기를 쓴 아이” 같다는 자각에 말끔하게 토해내고 싶은 혐오감과 분노까지 느낀다.²⁰⁾ 현실에서 느끼는 이질감의 한편에서 여자는 순간순간 다른 시간,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 아이의 자전거 바퀴살에서,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인생의 시간 조각들을 떠올리고, 어떤 흑인의 춤사위에서, 시간의 문을 열고 유년기의 집, 텃밭으로 되돌아간다. 공항에서 본 박제된 곰의 표정에서 “마치 관통상을 당한 듯”,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읽어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추어 섰어. 그리고 다음 순간 몸속으로 스며드는 그 감명이 무엇인지 알아내었어. 그것은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어. 무엇을? 하고 나는 빠르게 묻고 스스로 대답했지, 그것은 어머니. 나는 내 대답이 맞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웬지 폭 안도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은 물론이고 짐승, 벌레 그리고 산의 나무와 정원의 꽃, 길가의 마른 풀까지 그리고 하늘의 별들 달과 해 땅덩이와 바다, 집, 개천, 다리, 모든 것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나는 새로이 확인하듯 인식하였어.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낙원에 대한 꿈이기도 할 거야. 유년의 집 들창과 대문, 마당, 꽃밭, 부엌, 책상 이런 것이 내게 한꺼번에 어떤 이미지로 밀려들었어. 곰의 몸 전체 표정에는 그만큼 간절한 그리움이 있었어.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을 꿰뚫고 있었어. 나는 관통상을 당한 듯 아, 이렇게 근원이라는 게 역시 있는 것이로구나 생각했어.²¹⁾

20) 이러한 느낌은 상처 입은 영혼이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에 맞서거나 이겨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자기방어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류미향, 『권도옥과 김채원 소설 속 병리와 문학치료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7, 52면.

‘여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낙원에 대한 꿈, 그리고 유년의 집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떠올린다. 그 간절한 그리움은 유년기의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 모성으로 상징되는 어떤 것에 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바캉스로 떠난 니스의 바다에서 여자는 무중력상태의 기분 좋은 압박감, “있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편안함”을 느낀다. 자궁(잃어버린 낙원)으로의 회귀를 암시하는 이 대목은 여자가 줄곧 느꼈던 이물감과 비현실감이 어머니라는 인식처를 잃어버린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준다. 어머니는 아이의 제일의 장소이다. 그러나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가 부재하면 아이는 표류하고 만다.²²⁾ 여자는 인생의 오후에 이르러서야 생애 최초의 장소 상실이 가져다준 트라우마를 마주한 것이다. 그러나 피안을 향해 가려는 여자의 노력은 실패하고 만다. 어머니를 찾으려는 순간, 자신이 어머니로 호명되는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겨울의 환』과 『오후의 세계』는 모두 여성 정체성의 탐색 과정에서 느끼는 비현실적 실체감을 통해 결핍과 갈망, 근원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의 환』에서 여성 3대의 상처를 온전히 기억하고 부재의 존재를 기다리는 집, 『오후의 세계』에서 시간의 문을 열고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은 유년기의 집은 이러한 탐색의 종착지, 뿌리내림의 장소로 나타난다. 집은 정체성의 토대로서, 위안과 휴식, 안정과 신뢰를 원할 때 누구나 회귀를 갈망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확인했듯, 김채원에게 이 유년기의 공간은 단순히 행복한 추억의 장소만은 아니다. 그 집은 김동환이 납북된 곳, 분단의 상처와 파탄에 이른 가정의 슬픈 기억 때문에 ‘얼음집’²³⁾으로 표현되었다. 동시에 집은 남성 부재로 한층 강화된 가

21) 김채원, 『오후의 세계』, 김채원·유익서, 『자전거를 타고, 민꽃소리 외(한국소설문학대계 79)』, 동아출판사, 1995, 102-103면.

22)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11, 54면.

23) 김채원이 이 집에서의 가족사를 바탕으로 쓴 『얼음집』에는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내(최정희)의 모습이 그려진다. 서영은은 어린 김채원에게 히스테리컬하고 불안정한 어머니의 모습은 부정의 대상이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증거로 남았다고 쓰고 있다. 서영

부장제가 만든 억압의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자전적 사실을 상당 부분 그대로 서사화한²⁴⁾ 『겨울의 환』에서 이 집은 남성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씨리문을 잡고 기다려야 하는” 숙명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에는 집을 보호하고 위안을 주고 휴식을 주는 여성성의 장소로 보려는 남성중심적 시각이 깔려있다.²⁵⁾ 그러나 여성에게 가해지는 그런 속박과 억압 때문에 여성에게 집은 뿌리내림의 지향과 저항이 충돌하는 장소가 된다. 어머니에 대한 부정과 모방 속에 성장한 주인공이 결국 마지막 회귀에서 탐색이 실패하고 마는 것은 그리움의 실체, 모성(집)이 가진 이러한 이중성 때문이다. 어머니는 부정하고 넘어서야 하는 가치이면서도 결핍을 채워 줄 유일한 회귀의 장소이다. 유년기의 집도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 하여금 집안의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가부장제의 감옥이기도 하다.²⁶⁾ 이 때문에 김채원 소설의 마지막에서 상실한 낙원(집, 어머니)의 이중성을 확인하는 일은 지연되고, 상실된 가치와 새로운 의미의 탐색은 지속된다.

은, 『생의 태풍 속을 무구한 노(櫓)로』, 『문학사상』, 1984.5. ; 오유진은 김채원이 이 집을 남성적, 환상적인 감각을 풍기면서 구원을 지닌 곳으로 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유진, 앞의 논문, 45면.

- 24) 최정희가 밝힌 전쟁기와 전후 이 집에서 겪었던 일, 파인의 남북과 친정 동기의 월북과 잔류, 피난 전후 친정어머니의 사건과 피난 과정에서 김지원을 잃어버렸다가 후에 찾은 일 등(김복순, 『“나는 여자다” - 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52-66면.)은 이 작품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 25) 도린 메시는 장소와 공간에 대한 기존의 개념정리에 남성중심적인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곧 장소를 집과 노스텔지어의 결합으로 보고 갈망화, 낭만화시키는 시각에는 집을 보호하고 위안을 주고 휴식을 주는 여성성의 장소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도린 메시, 정현주 옮김,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54-62면.
- 26) 장소는 또한 억압적이고 감옥 같은 것일 수도 있으며, 틀에 박힌 일상 속에 속박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정착하고 싶은 욕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01-102면.

3. 엑조티시즘과 실존적 외부성²⁷⁾

김채원에게 유년기의 집이 안정과 불안, 그리움과 부정의 모순된 감정의 원천이 되었던 까닭에 실존의 근원으로서의 ‘집’은 영원한 탐색의 대상으로 남았다. 진정한 장소감의 상실은, 가짜 세상임을 의심하고 종종 ‘여기가 아닌’ 다른 시공간,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으로 이끈다.²⁸⁾ 그 중 하나가 이국의 공간으로 1970년대 김채원의 소설 대부분의 배경이 되었다. 데뷔작인 『밤인사』(1976)를 비롯하여 『자전거를 타고』, 『달의 손』, 『먼 바다』 등은 일본, 『몽수리 공원에 내리는 가을』, 『밀월』, 『오후의 세계』 등은 프랑스, 『안개』, 『나이야가라』 등은 미국이 배경이다. 주인공들은 이 장소에서 참된 장소감을 찾지 못하고 정체성 갈등과 좌절을 겪는다.

실제로 김채원은 1970년대 초 한국에서 동경으로, 동경에서 뉴욕으로, 다시 파리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다. 이 시기의 이국 체험을 두고 “어디론가 가버린 그 빛을 찾아서” “확실히 운곽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회구하는 세계를 찾아서” 집을 떠나 이국을 향하였으나, “체험의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²⁹⁾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고 관련을 맺음으로써 그 공동체에 소속되고 완전히 동일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실존적 내부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뒤늦게 자

27)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에 대한 경험의 방식을 문화에 동화되는 수준에 따라 크게 내부성과 외부성으로 나눈다. 내부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제로 행동을 하거나 감성적인 참여를 하거나 장소에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빠져들어 감으로써 획득된다. 실존적 외부성(existential outsidership)은 장소에 대한 자각적이고 깊은 생각 끝에 내린 무관심, 사람들과 장소로부터의 소외, 돌아갈 집의 상실, 세계에 대한 비현실감과 소속감의 상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경우 장소는 실존의 의미 있는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망상적 활동의 배경이 될 뿐이다.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18-120면.

28) 기억 속 유년기의 집이나 금지된 장소, 산 너머의 세계, 혹은 영화 속의 삶, 땅 밑, 바다 속, 거울 속의 세상 등에 대한 상상이 자주 나타난다. 김채원은 이런 상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편 『시간의 춤』을 쓴 후 다시 『거울 속의 샘물』로 다듬었고, 이를 단편영화로 만들었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 소리와 공간의 이미지들이 거울을 매개로 펼쳐진다.

29) 김채원, 『내가 가장 예뻐던 때』, 『꿈꿀 시간 있으세요?』, 전원, 1993, 22-25면.

각한 것이다.

사실상, 1970년대 다수의 청년층이 유학과 취업을 위해 외국으로 이주한 상황은 전쟁과 함께 유입된 막강한 아메리카니즘, 성취의 열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이면에는 자유의 세계에 대한 동경, 분단의 상처로 인한 경계와 도피의 심리도 작용하고 있었다. 김채원의 이국 배경 소설에는 그 복잡한 상황이 다소 불투명하게 그려진다. 남북의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교류가 가능한 국가에서 느끼는 유혹과 불안감이 그것이다. 『달의 강』(1997)은 작가의 말대로 분단상황을 배경으로 분단문제를 의식하고 쓴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의 전반부는 김채원의 체험을 소재로 하여 재일북한인과의 우정을 그리고 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한 초기 단편 「자전거를 타고」(1977)를 개작하여 넣은 것으로, 남북으로 이산된 가족을 둔 자신의 상황을 제3국에서 객관화시켜 보며, 교류에 대한 희망을 엿보게 한다. 중반부는 파리를 배경으로 한 「아이네 클라이네」(1981)를 개작하여 넣은 것으로, 이응노 화백과의 인연과 동베를린 사건, 백건우와 윤정희 부부 납치 미수사건이 삽입된다. 「바다의 거울」(2002)은 김채원의 평양방문기로서 다큐멘터리 형식의 소설이다. 이 소설들에 나타난 재일한국인과의 우정, 북한 방문 예술인과의 교류의 서사, 그리고 평양방문의 기록에서, 부재하는 아버지의 세계에 접근하고자 하는 작가의 실제적이고 상상적인 노력을 읽어낼 수 있다. 이국 체험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분명한 노력의 흔적인 것이다. 그러나 분단은 엄연한 현실이었고 결핍을 해소할 방법은 사라진 과거에서나 찾을 수 있었다.

자각과 성찰의 시간을 보낸 후, 김채원은 그 이국 체험의 실체를 실존적 감각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서사화한다. 그 중 하나가 자전적 소설 「애친」이다. 이 작품은 한자 영화 제목도 읽을 수 없으면서도 영화의 여주인공이 되어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슬픔 속에 내맡기던 소녀의 막연한 액조티시즘을 전후의 불행한 가족사 속에 소환하여 그려냄으로써 분단과

갈등으로 방치된 채 성장한 세대의 아픔을 강조한다. 주인공은 전쟁과 분단, 그리고 “부성(父性)이 멸실된 가족 공동체 속에서 ‘엄격한 생존의 현실’에 내팽개쳐진” 채³⁰⁾ 방치된 어린 소녀이다. 소자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전쟁 중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대신 이부(異父) 오빠 승일이를 통해 어른의 세계를 배우며 성장한다. 그를 통해 서양의 문화를 접하고 영화를 즐기며, 영화 속에 “아름다운 온갖 것들”이 있다고 상상하고 동경한다. 주목할 부분은 정전된 거리에서 소녀가 느끼는 막막함과 불안에 대한 다음의 서술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툭, 소리를 내며 거리의 등불이 일제히 꺼졌다. 정전은 익숙한 것이었다. 극장의 네온만 어두운 하늘 아래 선명했다. 현실은 짓밟고 지나가야 할 무엇으로 소자에게 비쳤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알 수 없는 어두운 거리와 같았다. 그 거리는 끝없는 미로로 통하고 있었다. (중략) 비밀을 극복하기에는 상처가 따른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깨달았을까, 그러나 어른스레 곧 눈물을 닦고 길 건너편 영화관 쪽으로 빨려들듯 달려갔다.³¹⁾

갑작스런 정전으로 어두워진 거리와 그것의 익숙함은 단지 전후의 암담한 현실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박탈감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일하게 빛나는 극장의 네온은 이국의 환영 속에서 그 박탈감을 메우고 꿈을 키우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짓밟고 지나가야 할” 현실과 끝없는 미로는 성인모델이 부재하는 혼란한 현실을 암시한다. 주변에 내린 갑작스러운 암흑은 나를 중심으로 한 지각공간,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게 연결된 생활 공간(실존공간)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이다.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공간만이 남은 상태에서 빛나는 네온, 그리고 미로는 이 주인공의

30) 장석주, 『당신, 아버지, 그리고 여성적 실존의 원형』, 김채원·유익서, 앞의 책.

31) 김채원, 『애친』, 『달의 물라』, 앞의 책, 191-192면.

로 하여금 현실을 넘어선 다른 세계, ‘대리적 내부성’³²⁾을 느끼던 영상 속의 세계로 향하게 이끄는 장면이라 해석할 수 있다.

집과 공동체의 ‘장소성’을 상실하고, 정전된 길에서 이국의 환영과 미로를 따라 현실을 짓밟고 나가야 했던 이 여성 인물은 이후 여러 작품에 변형되어 등장한다. 그 중 하나가 『서산 너머에는』(2002)이다. 이 작품은 서산 너머, 미국 뉴욕에 사는 사촌과 전화 대화를 중심으로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어린 시절 서구 취향에 사로잡혀 있던 주인공은 과거 미국에서 온 소포에서 “신성함, 풍족함, 젊음, 유능함, 굳건함, 신사적인, 신식인..... 신세계.....”의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그곳으로 유인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이미지였다.

승준이 오빠에게 미국에서 오던 우편물 속에서 분명 그런 어떤 냄새를 맡았던 어린 날의 그 첫 느낌. 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가. 전쟁, 테러, 어둠, 굴절된 빛, 역사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까. 사람들, 우리들의 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비틀린 세계의 밑그림의 정체는 무엇일까.³³⁾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나’는 사촌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줄 근원적인 힘에 대해 생각한다. 한때 그것은 강대국에 의해 주도되는 물질문명, 이국의 삶의 냄새로 감각되었지만, 이제 ‘의식 속에 숨어있는 어떤 것’으로 방향이 바뀐다. 마지막에 “지구에 뿌리박고 있다가보다 지구를 감싸 안고 있는 듯 보인다는” 생명의 나무, 혹은 어둠을 몰아낸 ‘빛의 통로’를 통한 치유와 구원을 찾겠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실

32) 특정 장소를 생생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설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 장소를 경험하는 것을 대리적 내부성이라고 한다. 즉, 간접적이거나 대리적인 방식으로 장소를 경험하고 그 느낌을 전혀 받아 감정을 이입하게 됨을 뜻한다.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18면, 122-123면.

33) 김채원, 『서산 너머에는』, 『쪽배의 노래』, 37면.

존의 근원에 대한 탐색은 '여기가 아닌' 다른 시공간에 대한 상상-현재 공간을 확장한 이국의 공간이나 시간의 문을 열고 과거의 장소로 향하는 것이 아닌, 내면 성찰을 통해서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4. 현대 문명 비판과 장소 상실

김채원이 귀국 직후 발표한 『나이아가라』(1978)³⁴⁾는 미국에서 진학할 수 있기를 꿈꾸며 택시 운전을 하는 기묘라는 인물이 결국 적응에 실패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처음부터 미국 대륙의 어느 풍경에서도 정감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격차가 심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결국 거대한 욕망의 도시 맨해튼의 한 가운데에서, 아무리 걸어도 그 빌딩의 숲에 도달할 수 없다는 '요원함'에 자살을 택한다. 이 빌딩숲, 욕망의 대도시는 21세기에 들어선 한국의 대도시로 다시 나타난다. 김채원 소설의 인물들은 수십 년이 지난 고국의 도시에서 1970년대 기묘가 뉴욕에서 느낀 절망감과 외부성을 느낀다. 고유한 장소 감각의 상실, 정체성의 박탈감이다. 그것은 공간의 확장과 이동이 아니라, 시간의 이동과 문명화 속도의 격차에서 오는 것이다. 세대 문제로 바꾸어 말하자면, 과거의 기억과 관습에 고착된 세대가 같은 공간, 다른 시간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저항과 관련이 있다.

김채원은 수필을 통해 진보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³⁵⁾

34) 이 작품은 『안개』와 함께, 김채원이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 발표한 것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문제적인 남성이 등장한다. 욕망과 공간, 도시성과 남성성을 겹쳐서 그림으로써 현대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젠더 문제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오유진은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통해서 진보적 도시 질서에 대응하고자 했음을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유진, 앞의 논문, 57-59면.

35) 김채원, 『너와 나의 만남은 필연인데』, 『꿈꿀 시간 있으세요?』, 전원, 1993, 200면.

2000년대 이후 소설에서는 내포작가의 모습을 닮은 화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직설적으로 논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인간 실존의 탐색은 젠더와 분단의 역사를 넘어 산업화 및 상업적 개발과정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개인이 느끼는 상실감, 현대사회의 보편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설의 주인공이 느끼고 서술하는 내용은 에드워드 렐프가 제시한 전형적인 장소 상실(placelessness)의 양상을 보여준다. 장소 상실은 장소가 상업적 개발과정에서 개성을 박탈당해 동질적이고 규격화된 경관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고유한 장소감(sense of place)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⁶⁾ 인간의 조건을 자각하고 세계에 대해 개방성을 가지는 대신, 기술중심의 대중적 편익에 맞춘 공통적이고 평균적인 성격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에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비진정성이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 장소 상실을 조장한다.³⁷⁾

『푸른 미로』는 장소에 대한 비진정성,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세계에서 느끼는 실존적 외부성과 장소 상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품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평행세계에 대해 상상하는 프롤로그에서 시작된다. 화자는 호안 미로(Joan Miró)의 그림에서 미로(迷路)를 연상하고, 다시 파울 클레(Paul Klee) 그림 속의 화살표에서 생각이 멈춘다. 미로를 헤매면서 간절히 원하는 정확한 방향의 제시, 그 화살표의 부재가 이 혼돈된 상황의 문제임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나’가 초등학교 때 제자를 위해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하고 돌아오는 내용이다. 제자는 규격화된 사회, 질서 정연한 세계에 맞지 않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자에게 보낸 나체사진이 문제가 되어 정신이상자로 몰리게 되었다. ‘나’는 제자가 일으킨 불협화음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자 하였고, 어머니의 시각에서 그 모든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나’는 이 세계의 어디에도 없다는 느낌, 나의 증언이 어디에도 가 닿고 있지

36)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3면.

37)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79-197면.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결국 법원으로 갈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길에도 착각과 환상으로 길을 헤매고 만다.

푸른 신호등이 켜지자 거리는 푸른빛으로 물들여졌다. 가리는 신호가 켜졌으나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길을 건너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³⁸⁾

단편 『애천』에서 어린 소녀가 정전된 거리에 서 있던 모습이 환기되는 장면이다. 밤은 어둡고 거리는 지나치게 넓고 차들은 너무 빨리 달리는 거리에서, 그녀는 불안감을 느낀다. 잃어버린 근원, '진짜 세계'를 찾기 위한 노력의 연속 속에서, 주변의 세계는 말 그대로 '가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제 생활공간의 영역조차 침범당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혼란에 처한 것이다.

비슷한 느낌과 무감동의 경험, 광범위한 획일화는 인간의 장소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방향성을 상실하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똑같이 생긴 공공 아파트 지구로서 전선과 도로에 의해 구획되고 연결될 뿐,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고려되지 않고 지역성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채원은 여러 작품에서 도시의 아파트 숲이 주는 충격을 세심하게 그리고 있다.

생각해보라. 한 정거 내내 아파트 단지여도 이상할 텐데 한 정거 두 정거 세 정거 네 정거 이렇게 아홉 정거까지 아파트 숲이었다. 가도 가도 가도 가도 아파트는 끝나지 않았다. 끝없는 직각과 직선의 세계. 어떻게 이렇게도 많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는가. (중략) 어마어마한 이 숫자. 공장을 중심으로 이룬 소왕국. 도시 속의 완벽한 요새³⁹⁾

38) 김채원, 『푸른 미로』, 『지붕 밑의 바이올린』, 현대문학, 2004, 317면.

39) 김채원, 『푸른 미로』, 앞의 책, 293면.

『푸른 미로』의 주인공은 강남의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 나오는 길에, 끝없는 아파트의 숲에서 방향을 잃는다. 자신의 위치를 감지할 만한 특별한 표지를 발견하지 못하여 혼란을 느낀다. 그녀에게 아파트만으로 이루어진 숲은 마치 도시 속의 완벽한 요새와 같아, 그 안에 갇힌 기분을 느낀다. 또 밤에 바라본 아파트는 창마다 불이 켜진 “거대한 유령선”과도 같아 보인다.

아파트 단지는 불 꺼진 건물들 사이에서 거대한 유령선처럼 창마다 불을 켜고 있었다. (중략) 어느 집이나 같았다. 방위에 방이 있고 또 방이 있으며 옥조 위에 옥조가 있었다. 화장실 배수관은 길디킨 파이프로 천당에 오르려는 듯 세워져 있었다.⁴⁰⁾

장소 정체성의 위협은 강요된 획일성과 표준화에서 온다. 이 도시의 아파트에서 상상되는 획일적인 일상은 개인에게 억압적인 위압감까지 가져다준다. 이 주인공이 변호하기로 한 제자는 바로 그 직각과 직선의 세계에서 곡선을 만들어 불협화음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지루할 만큼 길고 집요하게 이어지는 아파트 숲과 도시의 획일화된 일상에 대한 묘사는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실체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주는 거대함, 내외를 구분할 수 없는 요새화는 진정한 장소감을 박탈하고 자기 공간이 폐쇄되는 느낌을 준다. 『등 뒤의 세상』의 화자는 여자의 관찰을 빌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논평한다. 새로 짓는 건물의 화려함을 “필요에 의해 멋 부리지 않고 조출하게 무리 없이 지은” 옛 건물과 비교하여 “짜구려 같”고 “경박하”고 거리는 “막되어 먹은 듯”하다고 서술한다.

아무렇게나 거리를 압사시키며 세워져 있는 거대한 고가도로, 아무렇게

40) 김채원, 『푸른 미로』, 앞의 책, 319면.

게나 눈을 주는 어디에서나 설 자리 앓을 자리 살피지 않고 무지막지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 아무렇게나 쓰러질 듯 서 있는 시멘트 전봇대, 전봇대 위에 고압전선통이 위태롭게 얹혀 있고 수많은 전선줄이 그 무게를 감당 못 해 축 늘어져 있다. 가로수 사이를 지나가는 전선줄에 시름겨워 보이는 가로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가로수 옆 가로등 …… 이런 것들에 저항하기보다 순응하고 순종하듯 여자는 걷는다.⁴¹⁾

약국은 대형화되고 안경점은 수도 없이 많고, 모두들 물건을 파느라 정신없는 거리의 무지막지함은 결코 건강하게 비치지 않는다. 인용부에서 알 수 있듯, 고가도로는 “거리를 압사시키며” 세워져 있고, 전봇대는 “쓰러질 듯” 서 있고, 고압전선통은 “위태롭게” 얹혀있고, 수많은 전선줄은 무게를 감당못해 늘어져 있고, 그 때문에 가로수는 쓰러질 것 같다. 이 위태로운 길을 여자는 저항하면서가 아니라 순응하고 순종하듯 걷는다. 인간은 생물학적 필요와 감각에 근거한 수용력에 필수적인 정도, 그런 적절 한 규모일 때 장소에서 안정감과 토포필리아를 느낄 수 있다.⁴²⁾ 그러나 여자가 느끼는 도시는 너무 거대해져서 서로 관계를 맺는 자연스러운 공간 단위가 되지 못하고 불안감만 안겨준다.

앞서 살폈듯, 비인격적인 계획에 의한 경관 훼손과 건설, 그리고 획일성은 인간의 노스텔지어를 파괴하고 장소애를 상실케 한다. 개인의 추억, 사건의 기억이 녹아든 장소, 그 경관이 사라짐으로써 인간은 주변공간에서 고립감과 외부성을 느끼게 된다. 이 주인공을 자꾸 잡아당기는 그 등 뒤의 세상, 유년기 동경 속에서 바라보았던 성터 건너편의 세계는 이제 개발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과거의 추억에만 남아있게 되었음을 씁쓸하게 확인해야 한다. 김채원은 질서와 자유, 책임과 평등, 안전에

41) 김채원, 『등 뒤의 세상』, 앞의 책, 50면.

42) 이-푸 투안,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158-159면.

의 욕망,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애착의 근원⁴³⁾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 결과, 이제 그 문제를 분단의 역사와 가부장제의 문제만이 아닌, 문명화의 문제로까지 확대시킨다. 여기에서 느끼는 실존적 외부성은 내부성에 대한 여전한 갈망이면서, 현대성에 대한 저항의 의지로 나타난 것이라 할 것이다.

5. 노년의 불안과 길 찾기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채원 소설에서 여성성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점차 내면화, 간접화되고 인생의 새로운 길 찾기라는 주제가 나타난다.⁴⁴⁾ 집이라는 장소에 뿌리내린 존재를, 집 밖으로 끄집어내어 미로에 놓아두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에 의해 점유된 집 밖의 공간에서 여성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두려움과 불안감, 위축감을 느낀다. 유년기의 소자(『애천』)에게는 그저 막막함과 불확실함의 기표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문이었던 길 찾기가 중년에 이른 여성에게는 집으로의 회귀를 전제한 모험,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일로 그려진다.

『인 마이 메모리』는 길 찾기의 두려움에 대한 소설이다. 짧은 외출에도 피로감을 느끼는 자매는 둘만의 힘으로 길을 잃지 않고 성묘를 다녀온 것에 대단한 성취감을 가진다. 그녀들은 “현대도시사회에서 떨어져나와 고립되어 있는 인생의 다른 조각인 것 같”은 풍경에서, 이방인과 같은 낯섦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 자매지간에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애쓸 정도로 철저히 고립된 채 지내는 것이다. 철원 상공에 정체 불명의 비행기가 나타났다는 보도와, 목숨을 걸고 귀순한 탈북자의 소식은 그녀들을 더 불안에 떨게 한다. 그러나 이산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길

43)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95면.

44) 장석주, 『김채원, 그 모성적 상상력의 세계』, 앞의 책, 385면.

찾기가 한 번도 수월한 적이 없었던 자매들에게 성묘라는 상징적 외출행위는 목숨을 걸고 귀순한 탈북자의 행위와도 맞먹는 일이었다.

2000년대 이후 발표한 김채원의 소설에는 집 밖의 여성이 가지는 불안에 노화에 따른 불안과 장소감의 상실이 덧붙여 그려진다. 이제 주인공이 느끼는 실존적 외부성은 노화와 주변화에서 오는 소외감과 불안과 같은 정서적 특징과 결합하여 현실적인 문제 제기로 발전한 것이다. 노화는 지각세계를 수축시키고, 지리 감각을 둔화시키며, 외부와의 접촉횟수도 줄어든게 만들어 공간적 지평을 축소시킨다.⁴⁵⁾ 여기에 경관의 변화, 전통의 약화, 개인이 타인과 맺는 상호작용의 단절은 장소애를 더욱 약화시킨다.⁴⁶⁾

『푸른 미로』(2000)에서 ‘나’는 일상의 질서와 삶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기화하지 못하는 비사회적인 존재이다. ‘나’는 백화점 버스 시간과 노선을 확인하는 것도 서툴고, 길을 묻는 것도 힘들어한다. 똑같은 길과 빌딩, 아파트 숲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가 부재하고 있음을 하루의 외출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는다. 자전소설 『등 뒤의 세상』⁴⁷⁾에는 64세가 된 작가의 시선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별다른 사건이나 대화도 없이 산책과 관찰, 묘사와 내면 서술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여기에 주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지배적 정서로 나타난다.

이 여성 인물들은 자주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한다. 버스노선도, 설문조사서, 상품설명서, 저축안내서 등 설명글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 반비례하여, 그 속도만큼 도태되고 무기력해지는 노인 세

45) 이-푸 투안, 『토포필리아』, 앞의 책, 96-97면.

46)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80-83면.

47) 이 작품은 『현대문학』 2010년 1월호 신년 자전소설 특집에 실렸고, ‘대표작가 9인의 자전소설’을 묶은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현대문학, 2010)에 재수록되었다.

대들의 문제가 “모르겠다”는 반복적인 말 속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들은 1970-80년대 경제발전의 주역이었지만, 그 급속하고 압축적인 성장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되어 버린 것이다. 『베를린 필』에서 ‘나는 노화의 자각을 다음처럼 표현하고 있다.

친구들이 보여주는 이 공통된 느낌, 물론 그것은 인생이 후려친 자국, 손상의 느낌일 것이다. 나와 친구들의 뇌는 조금씩 표식 안 나게 쇠퇴해 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특별한 느낌이 거기에는 덧붙여져 있었다.⁴⁸⁾

‘나는 뇌가 쇠퇴한 느낌, “인생이 후려친 자국”을 일상에서 뚜렷이 느낀다. 콘서트를 보러 간 딸을 따라 나선 외출에서는 카페와 광장의 소음 덩어리가 마음을 부식시키는 느낌을 받으며,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보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크고 넓은 건물에서 길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멀리서 본 것과 가까이에서 확인한 것이 다른 데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악기를 실은 큰 차 때문에 막힌 주차장에서는 생의 이면을 보고 말았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관찰과 느낌은 남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주도권을 무엇인가에 넘겨준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딘가에 꿰어져” 살아왔다는 자각을 향한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느끼는 장소상실감에 과거 70여 년간의 파편화된 무거운 기억이 겹쳐져 한 세대의 쇠퇴과정과 피로감, 상실감을 그려낸 것이다.⁴⁹⁾ 노화의 자각에 덧붙여져 있던 바로 그 “특별한 느낌”이다.

주변으로 밀려난 노년의 인물들은 대체로 장소에 대한 애착과 연대감

48) 김채원, 『베를린 필』, 『2016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현대문학, 2017, 21면.

49) 노년의 작가가 느끼는 파편화된 시간, 기억의 파기, 상실의 수용, 공허감은 같은 시기에 쓰여진 『쪽베의 노래』(2014)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작품은 작가의 글쓰기의 기원이 되었다고 고백한 동승동 집의 조각난 이미지를 나열하여, 한때 함께 했던 기억만 있을 뿐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는 공허한 장소가 되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을 박탈당하고 과거 사건의 회상과 장소의 추억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는다. 이 때문에 어린 시절의 사건과 대상에 묶여 과거의 환상 속에서 지내는 일이 많아진다. 김채원 소설의 노년인물들도 이 비현실적 실체감을 벗어날기 위해 과거의 한 시기, 한 장소에 대한 기억에 집착한다.

『등 뒤의 세상』은 등 뒤에서 여자를 부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 성터 저편의 세계에 대한 사유에서 마무리된다. 여자는 어린 시절 성터 근처에서 살며 건너편의 그림 같은 마을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그곳의 삶을 동경했다. 공교롭게도 그곳에 현재 여자가 살게 되었지만, 그 시절 꿈꾸던 그 공간도 그 미래도 아니다. “괴물이 되어”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이 만난 지점에서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여자가 기억하고 느끼는 감정은 모호함, 두려움, 초라함, 그리고 아픔이다. 그저 다른 삶으로 옮겨가기 위한 노력 속에서만 안식을 느낄 뿐이다. 『푸른 미로』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 산꼭대기에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의 기억에서 마무리된다. 비행기가 추락한 장소로 가는 것이 금지된 까닭에 “커가면서, 보지 않은 그 부분이 어떤 공백으로 남아 몸속에 세포화”되었다는 자각, 그것이 인생에서 늘 이해하지 못할 미로의 심연과도 같은 부분이 되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해있으면서도 타인 같은 느낌을 받은 이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유년기에 가지 못한 그곳에서 찾아내지만 그 화살표는 곧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 공간에서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과거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베를린 필』의 마지막 부분도 회귀할 수 없는 시간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과 그 환영에 사로잡힌 상태를 보여준다. 이런 마무리는 이전 소설에 나타난 잃어버린 낙원으로의 회귀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공간으로 회귀를 꿈꾸는 자신을 “괴물”로 표현하며, 낙원의 상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6. 영원한 외부성, 분단성장세대 여성의 글쓰기

김채원은 전쟁과 분단, 이산의 고통을 겪고, 남성가족원 부재의 상황 속에서 동성 가족원(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모방과 거부 속에 혼란을 겪으며 성장했으며, 전후에 유입된 서구문화에 의해 이국 취향과 전통부정, 대립과 갈등 속에서 글쓰기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삶의 경험과 문체는 김채원 소설의 실존적 탐색이라는 형이상학적 뼈대에 피와 살이 되었다.

실존적 장소는 인간을 중심으로 주위를 둘러싼 환경과 의식적인 관계 맺음의 장을 형성함으로써, 또 관계를 통해 미지의 공간을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구축된다.⁵⁰⁾ 그러나 전후 현실 속에서 이 관계 맺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김채원 소설의 여성인물은 현실에서 내부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혈연이나 제도로 치장된 안정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본질과 근원(잃어버린 낙원)을 찾기 위해 이국으로 떠나거나, 길을 나서 낯선 주변을 관찰한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는 삶의 장소를 찾지 못한다. 세계의 '기만'을 깨닫고 다른 세계를 꿈꾸지만, 욕망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결국 도달할 수 없는 세계로 되돌아오는, 상실과 탐색, 회귀의 서사 구조가 김채원 소설의 구조를 이룬다. 초기 대표작 분석에서 확인했듯, 이 탐색의 과정은 실존적 고립감에 대한 자각이자 상실의 공포와 불안으로 점철된 치밀한 관찰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탐색의 끝에서 발견한 유년기의 집은 그리움의 실체이자, 가부장제의 감옥이고 상처의 근원임을 다시 확인한다. 따라서 이 지속된 탐색은 근원에 대한 지향이면서 동시에 뿌리내림에 대한 저항적 행위가 된다.

김채원 소설에는 지속적으로 공간의 확장과 길 찾기 모티프가 나타난다. 진정한 장소감을 상실한 까닭에 내부성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시공간

50) 김철중, 『실존적 장소의 내 외부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17.

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상으로, ‘꿈과 현실의 화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서정적 순간을 그려내고자 다양한 실험을 했고, 이 가운데 여러 인물이 겹쳐서 나타나거나 동일시되는 시간적 동시성⁵¹⁾ 초현실적 기법이 나타났다. 그러나 순간적 화해, 초현실적 해법만으로는 몸속에 “세포화”되고 만 공백, “늘 이해하지 못할 미로의 심연”(『푸른 미로』)을 채울 수 없었다. 그저 욕망의 대상을 향한 기표의 무한한 미끌어짐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는 영원한 외부성과 장소 상실을 견뎌내야 하는 노년층이 되었다.

전쟁과 분단의 시기에 유년기를 보내야 했던 이 세대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이념의 격투장과 폭력적 삶의 현장에 내팽개쳐졌고, 이런 이유로 올바른 성장모델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이 세대의 문제를 소설로 재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회상의 내용과 상처의 노출보다는 진정한 탐색의 형식에 있다. ‘방치된 채’ 성장해야 했던 소녀가 성인이 되고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도록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외부성, 그 원인과 답을 찾아가려는 내면의 모험 형식,⁵²⁾ 치열성이 그것이다. 동일한 지점에서 물러서고 다가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김채원은 조용히 때가 묻은 버선을 던져 버렸고, 길 찾기의 두려움을 견디었다. 한때 “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냄새로 다가온 액조티시즘의 실체와 자기기만을 목도하고 “인생이 후려친 자국”을 느끼며, 이제 급속도의 산업화 도시화로 훼손된 경관의 경박함과 뿌리 없음에 대해, 그리고 대량화와 획일화가 주는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조용하게 경고한다.

김채원의 후기작은 여전히 길 찾기의 두려움과 불안을 보여주고 있지

51) 임금복, 『존재 그리기의 미학』, 돈암어문학회, 『돈암어문학』 8, 1996.

52) 이 형식 역시, 손유경이 지적한 “비의지적으로 회귀하는 유년기-무의식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회상의 한 ‘형식’”(손유경, 『유년의 기억과 각성의 순간-산업화시대 ‘성장’서사의 무의식에 관한 일고찰』,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37, 2012.)의 하나로서 오정희, 윤홍길, 황석영 등 유년기 전쟁체험 세대의 글쓰기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만, 그것은 더 이상 실존의 근원에 대한 개인적 추구만은 아니다. 진정한 장소감의 상실과 실존적 외부성이 작가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직시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실존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 성찰이라는 문학 고유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한 오래 전의 평가⁵³⁾는 오히려 이 후기작들에 걸맞은 예견된 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53) 박철화, 『의지의 떨림, 떨림의 미학』, 앞의 책.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채원, 『오늘의 한국문학 33선-김채원』, 양우당, 1991.
 _____, 『꿈꿀 시간 있으세요?』, 전원, 1993.
 _____, 『달의 몰락』, 청아출판사, 1995.
 김채원·유익서, 『자전거를 타고, 민꽃소리 외(한국소설문학대계 79)』, 동아출판사, 1995.
 _____, 『달의 강』, 해냄출판사, 1997.
 _____, 『봄의 幻』, 열림원, 2003.
 _____, 『지붕 밑의 바이올린』, 현대문학, 2004.
 _____, 『쪽배의 노래』, 문학동네, 2015.
 _____, 『베를린 필』, 『2016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현대문학, 2017.

2. 논문 및 단행본

- 권영민, 「13회 이상문학상 심사평 - 잔잔하게 밀려드는 이상스런 감동」, 『겨울의 환』, 문학세계사, 1989.
 김경수, 「한국여성소설의 현대계」, 『한국여성소설연구 2』, 갑인출판사, 1991, 293면.
 김복순, 「“나는 여자다” - 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52-66면.
 김영미·김은하,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탐구」, 『오늘의 문예비평』, 1991.9
 김인옥, 「김채원 소설 연구」, 『개신어문연구』, 1998.12.
 김철중, 「실존적 장소의 내외부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2-5, 2017.
 류미향, 「권도옥과 김채원 소설 속 병리와 문학치료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7, 52면.
 변신원, 「환멸에서 환상으로-김채원론」,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길사, 2000, 117면.
 서영은, 「생의 태풍 속을 무구한 노로」, 『문학사상』, 1984.5.
 손유경, 「유년의 기억과 각성의 순간-산업화시대 '성장'서사의 무의식에 관한 일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37, 2012.
 심승희, 「장소 개념의 스펙트럼과 잠재력」,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현대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2013.
 오유진, 「김채원 소설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상상력 연구」, 서울대학교원 석사논문,

2020.

임금복, 『존재그리기의 미학』, 『돈암어문학』 8, 1996.

정미숙, 『‘밥상’의 지형과 젠더 구성』, 『현대문학이론연구』 78집, 2019.

조희경, 『김채원의 『겨울의 환』에 나타난 구원의 여정』, 『문학과 종교』, 2007.

이-푸 투안, 이옥진 옮김, 『토폴로리아』, 에코리브르, 2011, 96-97면.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11, 54면.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42-46면. 122-123면.

도린 매시, 정현주 옮김,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54-62면.

<Abstract>

The Existential Exploration and the Placeness in Kim Chae-won' Novel

Lee, Sa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existential exploration that consistently appear from the first major work, focusing on Kim Chae-won's later novels.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problem consciousness and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 interpretation was attempted by applying the results of human geographic discussions such as place, loss of place, and existential externality, and main concepts.

In the exploratory structure of Kim's novels, longing for the house (mother) as the origin, vague anxiety, an unrealistic sense of reality, unconscious desire of departure, and instinctive fear of finding a way are common. The female characters in Kim's novels imagine a different time and space where they can feel the true sense of place to escape from existential outsidership. In the process of this existential search, the female characters(or Kim) discover a place called "the house" that becomes a source of roots and a prison for woman, witness the self-deception and reality of Exoticism believed to be the power of the world, aware of the irreparable existential outsidership and themselves who grew old marginalized. And by borrowing the voice of the narrator, Kim criticizes the reality that the unique sense of place was lost due to standardization and uniformity in the rapid commercial development process.

Key words: Kim Chae-won, femininity, house, place, placeness,
placelessness, existential-outsideness, old age

투 고 일 : 2020년 8월 30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3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